

교차로



신년하례법회서 법문

월하스님(조계종 종정)은 지난 15일 구룡사와 서울 통도사 포교당이 함께 마련한 신년하례법회 및 양산 통도사 성지순례에서 법문을 했다.

금강불교대 졸업식 참석

김도용(전태종 종정)스님은 지난 18일 부산 삼광사에서 열린 금강불교대학 제6회 졸업식에 참석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1백82명이 졸업했다.

고베지진 현장 위문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일본을 방문, 고베지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일·한불교 교류회 인사들과 한중일 북경행사를 논의 했다.

한·태 국제불교대회 참가

보광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15일부터 열리는 제1차 한·태 국제불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5일 출국했다.

'사찰에서의 하룻밤' 개최

지선스님(백양사 주지)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장성 백양사에서 '사찰에서의 하룻밤'을 개최하고 신도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다.

영등불교 창간

부흥스님(강릉관음사 주지·영등불교보살행인)은 지난 1일 월간신문(영등불교)을 창간했다.

'바른역사...' 운영위원회

혜봉스님(이천지족암)은 지난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바른역사'를 위한 민족회의' 창립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

'시와 문화생활' 특강

서정주씨(시인)는 지난 16일 인천 송도가천인력개발원에서 가천문화재단 주최 '제3회 가천문화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 '시와 문화생활'을 주제로 특강했다.

시집 '독도' 출간

고은(시인·소설가, 본지논설고문)선생이 근작시 71편을 묶은 시집 '독도'를 냈다. (창작과 비평사, 3천원). 4부로 나뉘어진 이 시집에



서 고은선생은 고향이라는 회귀에 대한 그리움과 우리 산하에 대한 애정 어린 목소리를 담고 있다.

'문화의 전통...' 강연

김용운교수(한양대)는 지난 17일 서울 필동한국의 집에서 한국문화보존재단이 주최하는 '문화의 전통과 세계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불교방송 부산지사장에

류진수회장(부산불교신도회)은 지난 1일부터 불교부산방송 제1대 지사장에 임명됐다. 또 본부장에 박순곤 부사간구협회대표가 임명됐다.

한국불교교회원 총회 개최

한정섭법사(불교교회원 이사장)는 오는 28일 청량리 미주부패에서 대의원 및 포교사 법사회총회를 갖고 94년도 사업결산과 95년도 사업계획 및 현안문제를 논의한다.

축하모임 마련

송재운교수(동대신문사동인회장)는 지난 20일 프라자 호텔 22층 덕수홀에서 환영 한국문인협회 제20대 이사장, 송석구 동국대학교 제13대 총장, 이창식 (주)MBC에스엔드 상무이사, 김택근 한국전집기자회 제33대 회장 선

자전적 에세이집 낸 서석재 총무처장관



'영원한 촌놈' 베스트셀러 1위

불자국회의원들의 신행모임인 국회정각회장과 조계사신도회장을 지낸 **서석재** 총무처장관이 최근 자전적 에세이집 '영원한 촌놈'(문화사상사)을 펴내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격려해준 분들께 마음의

임 축하모임을 가졌다.

진여회 사무실 이전

박진성(조계종 진여회장)씨는 지난 3일 사무실을 종로구 수송동 원당빌딩 202호로 이전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자비의 손 법당에서 3개월 과정 원각경강의를 개설한다.

자료수집차 인도순례

정환주씨(작가)는 전2권으로 집필중인 장편소설 '자료수집'을 위해 지난 16일 출국, 28일까지 인도와 네팔의 불교성지를 순례한다. 시인 윤재림씨와 작가 구효서씨가 동행한다.

보고서를 드리는 심정과 함께, 나처럼 불운한 정치인이 다시는 이땅에 태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걸은 이야기가 후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출판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힌 서장관의 이 책은 '동해사건'으로 정치활동이 중단된 시간을 이용해 써온 글들을 묶은 것이다.

스스로 '촌놈'으로 자처하며 살아온 가난과 고학의 시절을 담담한 필치로 전해주는가 하면, '동해사건'에서는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사연과 교묘하고 치밀한 정치공작의 정문, 그리고 법정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뒷얘기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또 불교의 보다 밝은 내

일의 도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곳곳에 드러내 불교인으로서의 자기 몫을 추스리고 있다.

한편 '영원한 촌놈'은 종로서적 2월 둘째주 베스트셀러 집계 1위에 오르는 등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화스님 승가대수석 졸업

일화스님과 **최원섭**은 중앙승가대학교 승가대수석 졸업식에서 각각 수석우수석 및 각 단과대학 성적우수자를 발표했다.

이런 발표에 따르면 승가대 일화스님(사회복지학과, 평점 4.22), 동국대 최원섭(불교학과, 평점 4.45) 학생이 각각 전체수석을 차지했다. 중앙승가대와 동국대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졸업생 가족 및 교직원,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을 갖는다.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병상심방원은 지방 군부대병원을 찾아 부처님의 지비를 펼치고 있다. 사진은 사창리 군부대를 위문하는 회원들.

병상 심방원

전방지역의 군부대병원을 찾아 보살행을 펼치는 불자들이 있다. 서울 상도동 기슭 보문사내에 자리한 병상심방원(원장 정진). 보문사의 사중스님과 신도모두가 병상심방원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보문사는 인간방생의 근본 도량으로 불리고 있다.

16년째 군병원에 자비손길

법당 자견사 창건...간병인회운영·문서포교도

소외된 이웃 가운데 군부대 병원은 불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면면 곳이다. 병상심방원은 바로 이러한 특별지역만을 16년째 찾으며 부처님의 지비를 펼치는 것이다. 병상심방원은 79년 10월, 정진스님과 원공스님이 48일간 전국을 다니며 미타기도를 하면서 발원되었다. 불교기를 풀어주는 방생이 성행하던 당시 두스님은 전국의 저자거리에서 불교가 사화에 관심을 돌려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 뜻있는 이들과 함께 천축사에 병상심방원 간판을 걸고 전방지역의 군부대 위문을 추진했다. 초창기 병상심방원은 사무실을 통해 활동을 전개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은 보살행이 깨달음을 향한 부단한

론 사병과 장교들은 병상심방원의 방문을 기다리기 까지 한다. 특히 부대장들은 병상심방원 방문 후에는 몇달간 부대내의 비좁은 병사들만을 위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군부대병원의 뜻을 살려 91년에는 국군 병재병원에 자견사라는 법당을 창건, 환자 병사들의 마음을 계속 다스리도록 했다.

병상심방원의 활동은 군부대병원 위문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군부대 이외의 환자방문, 간병인회운영, 해외포교지원사업, 수행승습기, 불우학생복지지원, 출판 등 문서포교 등 인간방생에 관한 일이라면 어떤일이든 펼치고 있다. <업>

계시판

- ▲무로 법률상담=한국노인의 전화(회자 이상우)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12시에 법률문제가 있는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 (02)722-8007
- ▲자원봉사자 모집=김을종합사 회복지관·관장 재원재가복지센터에서는 재가가정봉사원을 모집중이다. 오는 3월8일부터 3주간 자원봉사와 관련한 교육수료 후 봉사활동 등을 하게된다. (02)985-0161~4
- ▲아함경·금강경반 개설=청계사 영등포포교당은 아함경반·아간금강경반을 개설하며 3월15일 개강한다. (02)636-1713
- ▲수강생모집=충북불교대학(학장 원탄)은 제1기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2년과정으로 25일까지 접수, 강의시간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 (0431)274-2159

'95 불교계 특별



중생의 고통을 다 들어 주실것만 같은 커다란 귀, 검은 볼로 긴 눈썹등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처님의 모든 거룩한 모습과 대자대비 하심까지를 분장으로 나타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경숙강사.

그녀는 부처님의 이미에 생명을 불어넣는 황금빛 점을 그려넣으며 분장을 마무리 짓는다. "신신나는 살아있는 분장으로 부

처님이 나누시는 모습을 표현해 불자들이 환희심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지난 92년부터 부처님 오신날 봉축 제등행렬의 총분장직임을 맡아 부처님과 마야부인, 불보살의 화신을 오늘에 재현해온 불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더라 만은 그녀가 분장을 하면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독특한 부처님의 머리모양이다. 가장 쉽게 생각되지만 표현상의 어려움도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머리모양의 표현이라고 한다. "불교행사에서 분장을 하다보니

대학에서 의학학을 전공한 김경숙씨는 메이크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일본에서 전문메이크업을 공부했으며 현재 서강대 연세대학원 방송아카데미 분장강사, 케이비 TV 케치인 분장·코디 담당, 조계사문화교실, 목동청년회관에서 불자주부들을 위한 메이크업을 강의하며 맹활약중이다. (이은자 기자)

독특한 분장 '살아있는 부처님' 재현

제등행렬·연극·TV등 활동폭 넓어... '불교기술원' 설립 꿈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93년 엑스포 행사때에도 엑스포 불교관 기념행사 불교가장행렬의 부처님과 십대제자 분장을 맡아 불교전통의 모습을 TV전파를 통해 세계에 알리기도 했으며 얼마전 성도절에는 수원 봉녕사 어린이 법회의 성도절 연극공연분장을 해주어 어린이들에게 부처님과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도 했다. 부처님을 표현해내는 가운데 어

1995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관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출가희망자
	4년	•통신 40명		
유 아 교 육 과 (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 교 미술 과	2년	•주간 20명		
신 문 방 송 과 (불교포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5년 2월 23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511-1080, 511-2026·2027·2028, 조계사알 삼보원:732-9904, 견지불교사:739-3032
부산영광도사:816-9500, 대구 제일서림:424-0801, 인천 대한서림:762-7337
광주 나라서적:222-2828, 대전 문경서적:252-8558, 수원 교학사:251-3928
마산 학문당:46-2925, 전주 흥지서점:88-5311, 경주 일선문교:53-2360
울산 세종서점:74-1265, 포항 학정서림:46-2120, 강릉 강릉서점:645-4373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511-1080, 511-2026·2027·2028)

2. 학교연혁

- 1989. 7. 3 학교설립공고
-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 92. 8 본교 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 93. 3 불교미술과·배출 보도(신문방송)과 개설
-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예정
-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삼 화 불 교 대 학 035-11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FAX 511-1080